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항만 출입 시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이행 적극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시행('22.8.4)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하며, 해당 안전관리계획에는 항만출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,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3. 또한, 우리 부는 항만시설소유자 및 출입증 발급 업무 대행기관(지방해양수산청, 항만보안공사 등)으로 하여금 항만출입증 발급(신규, 갱신) 시 「항만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침을 시달\*한 바 있습니다.

\* 「항만안전특별법령」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(해수부 항만운영과-4242, '22.8.4)  
- (근거) 국제선박항만보안법」에 따른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동법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, 「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」(해수부 훈령)에 따라 항만시설 소유자는 원활한 항만 운영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

\*\* (참고) 「항만안전특별법」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 외의 인원(외부트럭 기사, 공공기관 직원 등)은 "항만안전교육포털"(kptiedu.kr)에서 "기초안전교육(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, 총 15분)"을 온라인으로 이수(유효기간 1년) 가능(무료)

4. 일선 항만하역 현장에서 일부 정부(공공)기관 직원 및 업무 관계자 등이 항만안전교육 이수, 안전장비 미착용 및 과속, 불법 주정차 등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등에 협조하지 않아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알려드리니,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관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, 항만에 출입하는 관계기관 직원도 항만출입증 발급(신규, 갱신) 신청 시 「항만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(교육 이수증 제출, 교육이수 여부 화면 확인 등)를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항만출입증 발급 대행기관에

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해양수산부장관



수신자    관계기관·부서 및 관련 업단체 등

주무관    **김운석**    행정사무관    **장기봉**    과장    전결 2023. 4. 17.    **최종욱**

협조자

시행    항만운영과-2432    (2023. 4. 18.)    접수

우 25435    세종시 다솜2로 94, 5동 해양수산부    / <http://www.mof.go.kr>

전화번호 044-200-5774    팩스번호 044-200-5789    / [kimunseok@korea.kr](mailto:kimunseok@korea.kr)    / 대국민 공개

"2030 부산세계 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."